

전남 농수산물식품 카자흐스탄서 인기몰이

도 시장개척단, 편백오일·냉동미역 등 205만달러 수출계약

중국 수출품목 2018년까지 15개로 늘려 1억달러 달성 목표

드라마와 가요에 이어 ‘농업 한류’가 불고 있다. 친환경 농업이 늘어나면서 깨끗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의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 소비자들의 전남 농산물 구입도 늘고 있다. 전남도는 9월 “지난달 29일까지 1주일간 첨단환경(주) 등 8개 수출업체로 구성된 러시아·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총 205만 7000 달러의 수출계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10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 한류문화 및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 나라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진출

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다. 업체별로 첨단환경(주)이 축초액탈취제, 편백오일 50만 달러, 영여조합법인 바다랑해초랑이 냉동미역귀, 영장다시마 10만3000달러, 답타에프앤비가 코코아, 커피믹스 25만달러, 완도바다식품이 해조찰국수 35만달러를 각각 계약했다.

또 나주시니어클럽이 장류, 건야채 20만달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이 유자차 12만달러, (주)여수명가가 전복 장조림 33만4000달러, 미성영여조합법인이 고추장 장조림, 마른굴비 2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류에 민감한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의

수출도 늘고 있다. 전남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농수산물품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민선6기 농수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 의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국 농수산물품 수출확대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대중국 농수산물품 수출 1억달러 달성을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전남 식품관’을 개설, 중국 유기식품(COFCO) 인증 획득 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32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중국 내 56개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특성을 지역별로 분석해 권역별로 수출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현재 6개에 불과한 100만 달러 이상 대중국 수출 품목을 2018년까지 15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15개 목표 품목은 유자차, 해삼, 김, 오

리탈, 밤, 미역, 유기가공품, 화훼류, 주류, 음료류, 차류, 장류, 삼계탕, 뭇, 전복이다.

또 대중국수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현지 농수산물품 가격 동향 정보와 소비 경향 변화 등 중국 농수산물 수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사업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해외 수출 에이전트도 현재의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알리바바 등 중국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전남 식품관 개설, 현지 판매장 운영 등으로 유통망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매년 30~50%의 고성장으로 2015년 80억 달러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유기농시장에 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해금골드키위 판매확대 현장토론회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정병준 과수연구소장, 해금골드키위 품종 개발자인 조윤섭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금골드키위의 판매확대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진행된 현장토론회에서는 생산과 수확단계에서 고품위 유지를 위해 농가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사항, APC의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 수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는 지난해 대한민국우수 품종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당도가 높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며 2013년부터 해금골드키위 MOU를 통해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전남농협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50톤의 물량을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양식수산물재해보험

7년간 총 800억 지급

수협중앙회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지난 7년간 총 8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험은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것을 말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이 늘면서 가입도 덩달아 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8.2%에서 2012년 12.1%, 2013년 23.4%, 2014년 30%, 2015년 8월 현재 33.3%까지 상승했다.

태풍이나 적조 등 여름철 재해 피해 우려 품목의 보험가입은 평균 5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지난 7년간 태풍이나 적조 등 각종 재해피해를 입은 6400여가에 330억원의 보험료(순보험료)로 2.4배인 8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재해여가 경영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고, 2014년말까지도 누적손해율이 240%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순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가 넘었다는 건 지급한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많다는 의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닭고기·계란 먹는 ‘구구데이’

‘구구데이’는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부르던 것에 착안해 지난 2003년 지정됐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강남경 본부장)는 9일 나주축협 하나로마트광장 앞에서 대한양계협회 전남지회, 나주축협과 함께 ‘제13회 구구데이’를 기념해 닭고기·계란 시식 행사를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안전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3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 및 축산물판매장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식품안전 특별관리 지도·점검을 한다.

전남농협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대비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명절 성수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

로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와 공동조사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6개 지방청과 농협 식품연구원에서는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수검검사를 한다.

강남경 본부장은 “누구나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친환경농업 재배지·재배 농가 5년새 절반으로

친환경농업 재배지와 재배 농가가 최근 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친환경농업 면적은 2009년 20만1688ha에서 지난해 10만46ha로 5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친환경농업 농가는 19만 8891호에서 8만5126호로 57.2% 줄었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도 2009년 3조4117억원에서 2014년 2조

4221억원으로 29% 줄어들었다.

반면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줄여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ha당 233kg에서 지난해 267kg으로 15% 증가했다.

이 기간 친환경인증 취소 건수도 2810건에서 6739건으로 2.4배가량 늘었다.

경 의원은 “친환경농업이 위축하는 것은 국민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과 소비촉진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협·산림조합, ‘생산자단체 상생·협력·발전업무협약’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직매장 44곳, 66곳에 임산물과 수산물을 교차 입점시켜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협소평과 산림조합소평 등 두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매장에서

도 임·수산물 코너를 각각 개설해 교차 판매한다. 그 밖에도 ▲수출정보 공유 ▲수산물과 임산물을 결합한 식품·조리법 개발 ▲어촌과 휴양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유통비용 절감과 협동조합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케이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했어요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나주혁신도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자연과 도시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대자연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초특급 독립생활!!

-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이 결합
- 넓은 개인정원과 높은 일조권 확보
- 보안 및 관리가 쉽고 소음과 주차문제가 없음
- 개인 프라이버시의 철저한 보장
- 다양한 공동부대시설(공감대 형성의 커뮤니티 시설)

자연과 사람을 위해 집을 스케치하다!

시공 시행 : 성천종합건설(주) 성천 하늘숲 타운하우스 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상담문의 010-6565-2010

무인텔
부지매매

토지 직거래

건축 허가
즉시 가능

상업지역
총 3필지
각 1필지당
220평(730m²)

총 660평
(2,181m²)

주인 직매
010-5450-1172